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18호 / 6월 29일

중국과 일본의 무역관계 현황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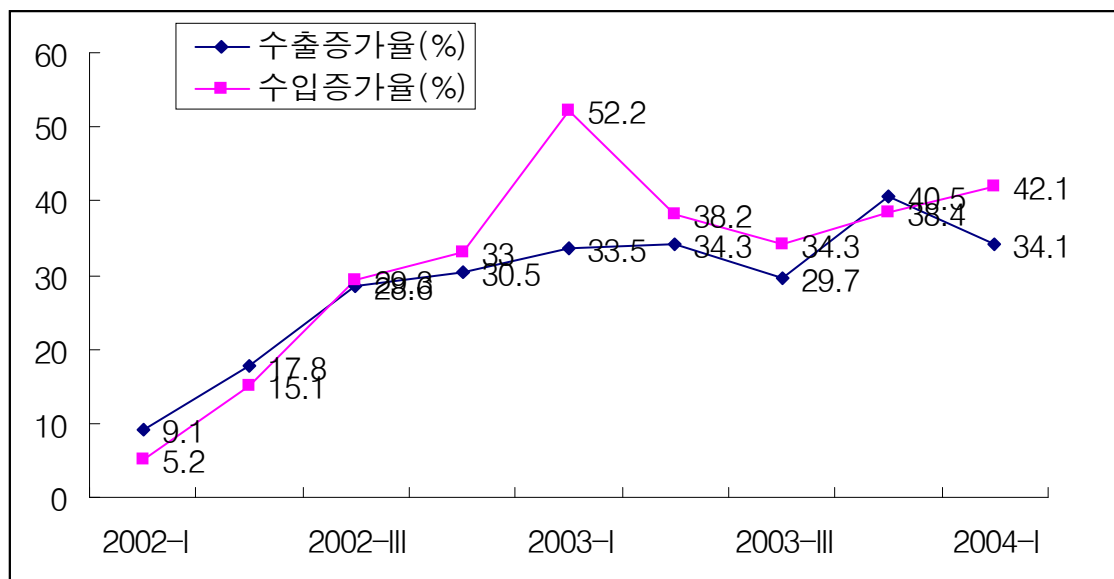
1. 개요

- 중국의 대외무역량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, 최근 중국은 對日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 - 중국의 對日 무역수지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0.9억 달러, 2001년 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이후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50억 달러, 148억 달러의 적자로 급반전되었음.
 - 2004년 3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55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, 금년의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.
 - 대일무역 적자 발생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었고, 경제성장 지속,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첨단제품의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.
- 일본의 향후 대외무역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,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.

2. 중국의 對日 무역 현황과 특징

- 중국의 대외무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특히 WTO 가입 및 대외 개방의 영향으로 최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.

<그림 1> 중국 분기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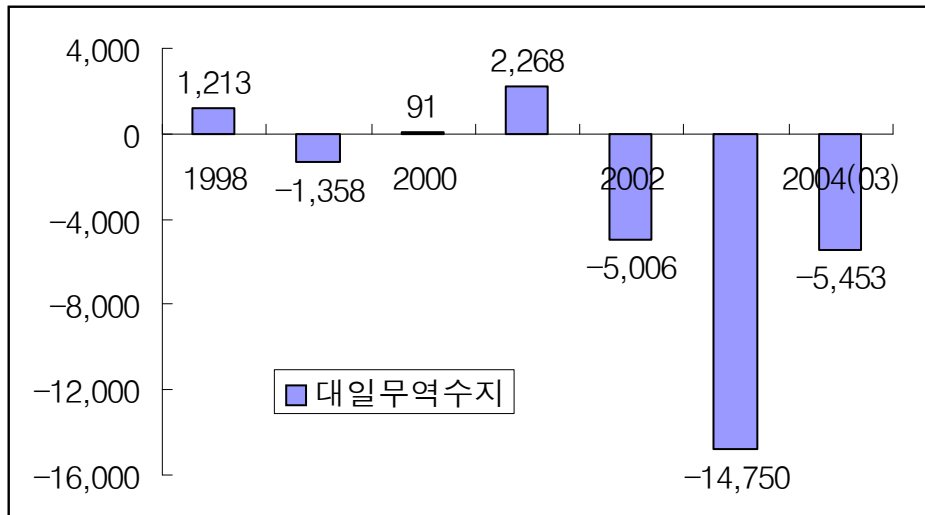
자료 : 海關統計

-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, 올해 1/4분기에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.
- 특히 최근 들어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 - 중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2002년 50억 달러, 2003년 148억 달러로 급증하였고, 2004년 3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해 올해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.
 - 일본측 대외무역 통계자료(일본과 중국의 무역통계자료는 집계기준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)에서도 최근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로 반전된 것으로

나타나고 있음.

- 일본정부는 2004년 2월분 대중 무역수지가 13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해 1994년 이래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
<그림 2> 중국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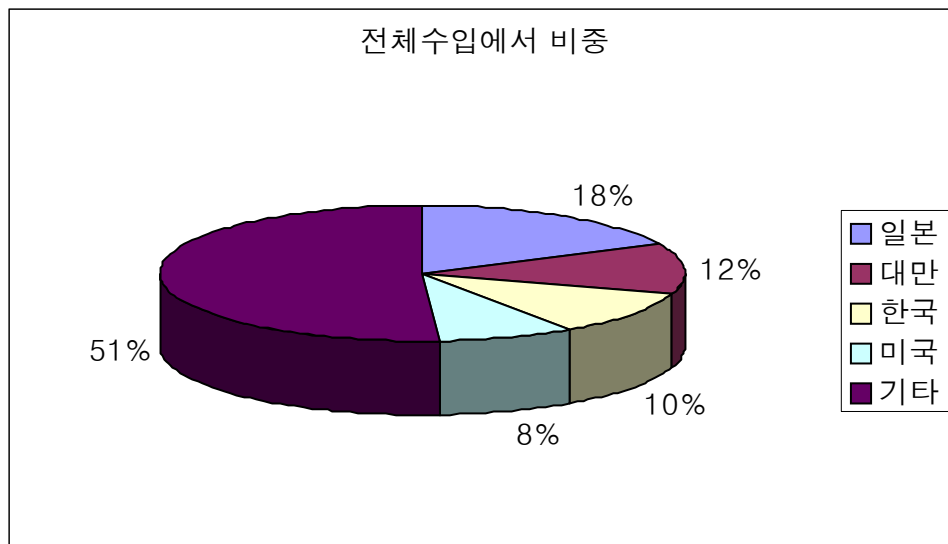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中國海關

- 일본의 대중 수출급증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장벽 완화,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임.
- 첫째,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중국의 수입은 급격히 확대되었음.
 - 중국의 수입의존도(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)는 2000년 20.8%에서 2002년 23.9%로 상승하였고, 2003년에는 29.3%로 높아졌음.
 -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으로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18%에 달함.
- 둘째,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소득향상은 투자수요 확대 및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수요 확대로 이어짐.

- 셋째, 중국 국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
 - 특히 전자제품, 기계류, 자동차 부품 등의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.
 - 2003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성에서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기계류는 114.9%가 증가하였고, 음향기계 및 부품류는 113.9%, 자동차 부품은 104.9%, 건설기계는 99.2%가 증가하였음.

<그림 3> 전체 수입에서 국별 비중(2003년 기준)



자료 : 中國海關

3. 일본의 무역정책 전망

□ 일본은 대중 무역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, 최근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.

- 이것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종전에 아세안 지역에서 구축한 생산네트워크를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일본이 對中수출에 과다하

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- 2002년 1월 13일. 일본과 싱가포르는 「일본-싱가포르 신시대 동반자관계 협정(JSEPA)」을 체결하였음.
- 2003년 10월 8일.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9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「아세안과 일본의 포괄적인 경제동반자관계 협정(CEP)」을 체결하였음.
- CEP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아세안과 일본은 자유무역지대(FTA)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.

<표 1>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의 자유무역정책 추진 현황

자유무역지대 협상 대상국	자유무역지대 명칭	현황
싱가포르	일본-싱가포르 신시대 동반자 협정	2002년 1월 13일 서명, 2002년 11월 30일 정식발효
ASEAN	아세안-일본 포괄적인 경제무역 동반자 협의	2003년 10월 8일 서명
한국	한-일 FTA	2003년 9월까지 공동연구회가 7차례 협의 개최
태국	일본-태국 경제합작협정	2003년 5월 5차협약, 8월 경제합작협정 특별작업반 구성
필리핀	일본-필리핀 경제합작협정	2003년 7월 5차협약, 9월 경제합작협정 특별작업반 구성
말레이시아	일본-말레이시아 경제합작협정	2003년 7월 2차협약, 9월 FTA공동연구회 설립
인도네시아	일본-인도네시아 경제합작협정	2003년 6월 쌍방 정부수석회담, 9월 경제합작예비회담 시작

□ 최근 중국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FTA 정책도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. 단 <표 1>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과 달리 양자간 FTA를 선호하고 있음.

- 2003년 10월 8일 중국이 「동남아시아 우호합작조약」에 서명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아 일본정부는 그동안 FTA 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농산물 시장개

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.

- 향후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는 중국의 2008년 올림픽,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, 그리고 중국이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, 동북老공업기지진흥 등의 국책사업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(***)